

이민우, 유망주 꼬리표 떼다



KIA 타이거즈 이민우가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KIA 핫 플레이어

오늘 한화와 연습경기 2차전 선발 스프링캠프 4경기 방어율 0.69
홍백전 마지막 경기 6이닝 무실점 위력적 페이스로 선발 시험 통과

“스피드 보다 볼끝에 힘 실기 주력
을 시즌 아프지 않는게 목표
자신있게 정면승부 하겠다”

KIA 타이거즈 이민우가 선발 리허설 무대에 오른다. KIA는 23일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KBO 연습경기 2차전을 치른다. 원정으로 치러지는 이번 경기에서 마운드는 이민우가 책임진다. 이민우는 스프링캠프와 홍백전에서 전개된 4·5선발 경쟁에서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KIA의 선발 한 자리를 차지했다.

스프링캠프에서 4경기에 나와 13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면서 0.6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던 이민우는 홍백전에도 4경기를 소화했다.

이민우는 홍백전 초반에는 컨디션 난조를 보였지만 점점 위력을 되찾으며 19이닝 4실점, 평균자책점 1.90을 기록했다. 볼넷은 5개로 묶였고 탈삼진은 16개를 뽑아냈다.

특히 홍백전 마지막 등판이었던 지난 15일에는 6이닝을 3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선발 확정 자축소를 펼쳤다.

최근 페이스로는 3선발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인 모습이다.

“정면 승부”로 선발 경쟁의 승자가 된 이민우는 한화와 연습경기에서도 빠른 승부로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이민우는 “결과가 좋았다. 운이 좋았고, 코치님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잘 간 것 같다. 피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승부하는 걸 원하셨는데 그렇게 했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처음에는 스피드보다는 공 끝에 신경 썼다. 볼 끝이 좋아지니까 확실히 안 맞는다. 맞아도 정면으로 간다. 투구폼과 밸런스가 좋아지면서 일정한 포인트로 던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초반에 카운트를 잘 잡아가니까 확실히 유리한 카운트에서 승부를 하게 되고, 범타도 많이 나온다”며

“캠프 때보다는 페이스가 덜 올라왔다. 그때는 워낙 좋았다”고 말했다.

꾸준하고 강렬한 모습으로 ‘선발’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아직 갈 길은 남았다. 지난 시즌에도 좋은 구위의 공을 가지고도 기복을 보이면서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다.

또 신무기 체인지업으로 공격력을 키워왔지만 대신 다른 변화구에 고민이 생겼다.

이민우는 “솔직히 처음 선발로 하는 거라서 모르는 게 많다. 일단 아프지만 말자는 생각이다”며 “변화구는 요즘 슬라이더와 커브에 문제가 생겼다. 체인지업이 되니까 다른 게 안 돼서 머리가 복잡해졌다(웃음).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은 반대로 던지니까 이 부분은 경기하면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깨막하는 느낌이다. 정면승부를 피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 있게 승부하면서 선발로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연습경기에서 내서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팔꿈치 통증으로 캠프와 홍백전에서 14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던 기용은 2군 연습경기를 통해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기용은 지난 21일 함평 칠린저스필드에서 진행된 KT 2군과의 연습경기에서 6이닝 퍼펙트의 호투를 기록했다. 탈삼진은 9개를 수확했고, 직구 최고 스피드는 145km를 찍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침 뱉기 금지 어져도 징계는 없어”



KBO, 코로나 예방 권고사항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서 금지 사항으로 지정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당장 징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KBO 관계자는 22일 “최근 발표한 대응 통합 매뉴얼은 권고 사항”이라며 “일부 금지 사항 역시 징계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각 팀은 자율적으로 권고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징계 등으로 선수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KBO는 연습경기 분위기를 살핀 뒤 징계 조항 신설 여부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KBO는 최근 선수 및 관계자들이 경기 중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통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맨손 하이파이브 등은 ‘강력 권고사항’으로, 경기 중 침 뱉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분류했다.

경기 중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문제에 대응하고, TV 중계를 통해 시청하는 야구팬들에게도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조처였다.

KBO는 통합 매뉴얼을 제작하면서 많은 선수가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벤치 클리어링’ 금지 여부를 놓고도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되 야구가 갖는 특성을 해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 벤치 클리어링 금지 조처는 권고 사항에서 빠졌다.

/연합뉴스

‘괴짜’ 디샬보, 48인치 드라이버 장착?

“스윙 스피드로는 부족...장타 위해 필요” SNS에 글

각종 과학적 가설을 필드에서 증명하려고 애쓰는 바람에 ‘필드의 괴짜 과학자’로 불리는 브라이언 디샬보(미국)가 48인치 길이의 드라이버를 실전에서 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골프채널은 22일(한국시간) “디샬보가 최근 SNS를 통해 ‘잘 제어할 수 있다면 48인치 길이의 드라이버를 쓰겠다’라는 발표를 했다”고 전했다.

디샬보는 “스윙 스피드를 끌어올렸지만 뭔가 모자라서 분석을 해봤다”면서 “만약 45.5인치 길이 드라이버처럼 똑바로 공을 날릴 수 있다면 48인치 드라이버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썼다.

미국골프협회(USGA) 장비 규정에 따라

면 길이가 48인치를 넘는 드라이버를 공식 경기에서 사용할 수 없다.

48인치는 드라이버 길이 상한인 셈이다. 드라이버는 길면 길수록 거리가 멀리 나지만, 제어가 힘들어 선수들은 45인치 안팎 길이의 드라이버를 주로 쓴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브룩 헨더슨(캐나다)가 48인치 짜리 드라이버를 쓰지만, 스윙 제어를 위해 한참 내려잡아서 실제로는 46인치 짜리나 다름없다고 한다. 그는 작년부터 체중과 비거리는 비례한 다면서 몸집을 크게 불러 볼 스피드를 시속 200마일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장타자로 변신했다.

/연합뉴스

A-로드·로페즈 커플 구단주 되나

‘뉴욕 메츠’ 입찰 참여 의사...J.P. 모건과 3조원대 투자금 유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스타플레이어 출신의 알렉스 로드리게스(45·A-로드)와 인기 가수 제니퍼 로페즈(51) 커플이 뉴욕 메츠 구단 인수에 나섰다.

AP통신은 22일(한국시간)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A-로드와 로페즈 커플은 미국 금융그룹 J.P.모건과 함께 메츠 구단 입찰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메츠 구단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 구단주인 프레드 윌폰은 지난해 12월 헤지펀드 억만장자인 스티브 코언과 구단 인수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코언은 메츠의 지분 80%를 26억 달러(약 3조2100억원)에 인수하려고 했지만, 메츠 소유주들이 협상 후반에 조항을 바꾸면서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츠는 다시 새로운 구단주를 찾고, 인수 전에 A-로드가 뛰어들었다.

A-로드·로페즈 커플은 J.P. 모건과 함께 최소 26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끌어모을 것으로 보인다.

A-로드가 구단 운영을 결심한 데는 앞서 구단주로 변신한 데릭 지터(46)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유격수 출신의 지터는 2017년 투자그룹을 이끌고 마이애미 말린스 구단을 12억 달러(1조4800억원)에 인수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스타플레이어 출신의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인기 가수 제니퍼 로페즈 커플.

지터는 현재까지 마이애미 구단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메츠의 구단 평가액은 23억 달러로 30개 구단 중 6위를 기록했다.

마이애미는 10억 달러로 최하위에 그쳤다.

/연합뉴스